Daishin 증권

2026년 02월 20일 금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코스피 사상최고치 +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 연휴기간 글로벌 증시의 회복을 반영, 리스크 회피 자금 복귀
- 정책 기대감 지속, 연휴 이후 재개되는 2월 임시국회와 정책 타임라인 재개
-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 실적 기여도 높은 성장주/주도주 업종 전반 강세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AI 모멘텀 재점검 국면

- 주말사이 미국 PCE, 4분기 GDP발표. 시장은 금리보다 성장에 주목
- 26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발표에 따라 AI 산업 전망의 향방이 결정될 것
- 반도체의 주도력과 가치주 순환매의 균형, 변곡점 확인과 대응에 집중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Global Strategy

[THE GLOBAL 주간 증시 전략 / 2월 4주차] 물가지표(CPI, PCE, PPI)가 살리는 미국 증시 & AI 낙관론

- 미국 증시, 1월 CPI 확인 후 산업(AI) 변수보다 매크로(물가) 변수에 더 반응하기 시작
- 1월 CPI에 이은 12월 PCE, 1월 PPI 결과는 연준 금리 인하와 할인율 축소 기대를 재부각시키는 요인
- 미국 증시, 짧게는 3월까지 상승이라는 방향성은 지속. 미국 및 AI 혁명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비중확대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Global Strategy

중국 춘절(春節), 소비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 수단

- 정부 내수 회복 정책 발표로 수혜 업종(미디어, 방산, 건축) 상승
- 춘절 소비 진작책과 기간 연장 감안 시 역대 최고치 경신 예상
- 3월 양회에서 강도 높은 부양 정책 발표 시 소비 업종 반등 기대

문건우. gunwoo.moon@daishin.com

Commodity

유가, 보수적 관점 유지하되 호르무즈 해협 이슈 경계

- 3월 OPEC+ 회의 앞두고 거론되기 시작한 OPEC+ 증산 재개 가능성. 중동 산유국 냉방 시즌(4~9월) 도래 시 재개, 유가 하방 요인
- 다만, 당장은 경계 필요한 구간. 이란 핵 협상은 여전히 난항, 미 백악관 내부에서는 군사 옵션 거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Up
- 미국 측은 2주 시한 제시했지만 지난해에도 시한 주고 공습. 유가 상단 제한적(3Q限)이라는 기존 View 유지하되 지정학 리스크 경계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Issue comment] LG 디스플레이: 1Q 깜작실적, 그리고 2026 년 피지컬 AI 진출!

- 1Q26 영업이익은 2,109억원(530% yoy) 추정, 예상을 상회
- 글로벌 휴머노이드향 OLED 디스플레이 공급 가능성 상존
- OLED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 2026년 영업이익 148%(yoy) 증가 추정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Issue comment] 코리아써키트: 2026 년 차별화된 성장, 저평가 지속!

- 1Q26 영업이익(287억원)은 흑자전환(yoy) 추정
- 2026년 영업이익(1,351억원)은 151%(yoy) 추정, 호실적 전망
- 2026년 브로드컴(AI), 엔비디아(소캠)향 매출 증가 예상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4Q25 Review] 엠씨넥스: 26 년 전장향 매출 확대

- 4Q25 영업이익은 82억원(23% qoq)으로 추정을 하회
- 1Q26년 영업이익은 112억원으로 36%(qoq) 증가 추정
- 2026년 전장향, 구동계 등 신성장 매출 증가 전망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Strategy

코스피 사상최고치 +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연휴기간 글로벌 증시의 회복을 반영, 리스크 회피 자금 복귀
- 정책 기대감 지속, 연휴 이후 재개되는 2월 임시국회와 정책 타임라인 재개
-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 실적 기여도 높은 성장주/주도주 업종 전반 강세

연휴기간 글로벌 증시의 회복을 반영, 리스크 회피 자금 복귀

–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급등 출발하며 5,600선을 돌파, 연휴기간 리스크 회피 자금의 복귀와 억눌렸던 대기 매수세가 일시에 유입되며 사상최고치 랠리 재개

– 연휴기간 미국 CPI 안정 확인, 위험자산 투자심리 회복, 전주 AI발 하락을 만회

– 글로벌 AI 기술주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는 차별화 장세 또한 지속. 반도체 중심 국내 증시도 긍정적 흐름 유지

– 현재 코스피 선행 EPS는 576pt로 5,650선을 기준으로 환산하여도 PER이 10배를 하회(9.8배 수준).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 미국증시 변동성과 비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심도 증가

– **반도체:** 삼성전자(+4.9%), SK하이닉스(+1.6%), 피에스케이홀딩스(+21.1%) 등

정책 기대감 지속, 연휴 이후 재개되는 2월 임시국회와 정책 타임라인 재개

– 정책 기대감 또한 지속, 상법 개정안 2월 통과 추진 및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 호응 가시화, 코스닥 활성화 방향성 유효. 코스닥은 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 이후로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며 장대양봉 마감

–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8,570억)과 기관(1.04조)의 순매수 유입되며 상승 주도

– 코스닥 대형 업종인 바이오/2차전지/로봇/반도체 장비 등 성장주 일제히 급등

바이오: 삼천당제약(+19.4%), 알테오젠(+7.7%), 엘앤씨바이오(+23.4%) 등

2차전지: 에코프로(+14.6%), 포스코퓨처엠(+4.7%), 삼성SDI(+9.0%) 등

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7.2%), 하이젠알앤엠(+5.9%), 로보티즈(+4.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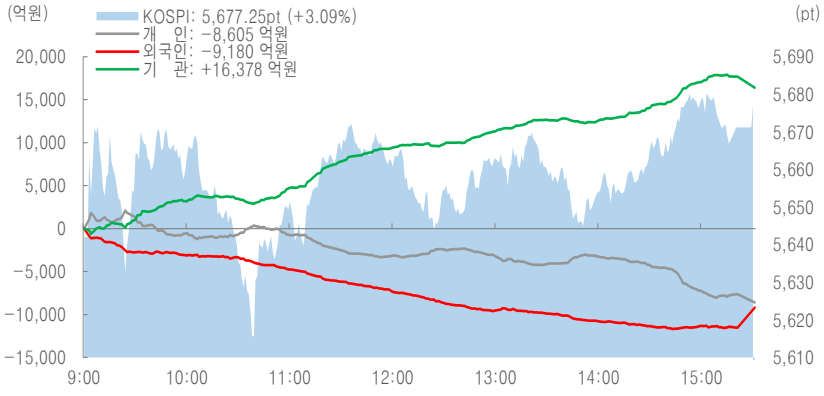
– 증권: 증시 호조와 예탁금 100조원 회복, 3차 상법개정 추진과 주주환원 등 미래에셋증권(+14.5%), NH투자증권(+18.9%), SK증권(+30.0%) 등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 실적 기여도 높은 성장주/주도주 업종 전반 강세

- **신재생 에너지:** 4분기 실적시즌 호조와 우주 데이터센터 테마 등 모멘텀 지속 한화솔루션(+27.5%), HD현대에너지솔루션(+10.1%), 씨에스윈드(+18.3%) 등

- **조선:** 미국 '해양 액션플랜', 중국 배제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선박 건조 허용, 한화오션(+8.3%), HD현대중공업(+5.7%), 성광벤드(+16.8%) 등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Strategy

엔비디아 실적, AI 모멘텀 재점검 국면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주말사이 미국 PCE, 4분기 GDP 발표. 시장은 금리보다 성장에 주목
- 26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발표에 따라 AI 산업 전망의 향방이 결정될 것
- 반도체의 주도력과 가치주 순환매의 균형, 변곡점 확인과 대응에 집중

주말사이 미국 PCE, 4분기 GDP 발표. 시장은 금리보다 성장에 주목

글로벌 증시는 AI가 모든 주식을 끌어올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누가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차별화 장세로 전환.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들의 등락 속에서도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코스피 아웃퍼폼 지속

코스피는 4분기 실적시즌 9부능선 통과, 연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선행 EPS 상승 추세가 정체되는 변곡점에서도 사상최고치 랠리를 재개한 상황. 단기 과열 해소와 매물 소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 대응이 중요

20일 밤 발표되는 미국 12월 PCE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YoY 2.8% 예상, 근원 PCE는 전월(2.8%) 대비 소폭 상승한 2.9%로 컨센서스 형성. 그러나 1월 CPI 둔화 이후 물가 우려가 낮아졌고 시의성도 떨어지기에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한다면 증시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미국 4분기 GDP도 전분기(QoQ 연율 4.4%)대비 둔화된 3.0%로 컨센서스 형성. 다만 애틀랜타 연은 GDP Now는 그보다 높은 3.6% 예상. 예상치 대비 높은 성장이 관측될 경우 성장주 대비 가치주 로테이션 지속될 전망

26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발표에 따라 AI 산업 전망의 향방이 결정될 것

26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발표에 따라 AI 산업 전망의 향방이 결정될 것. 현재 4분기 컨센서스 매출 658.2억 달러, EPS 1.52달러로 형성. 다만 시장은 이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대. AMD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실망으로 -17% 하락했던 바 있음. 젠슨황 CEO의 발언 또한 주목. 최근 AI의 기존 산업 잠식과 과잉투자 우려를 모두 잠재우면서도 AI 투자의 성장성을 어필해야하는 상황. 시장은 AI 우려를 어느정도 가격에 반영한 상태이지만 최근 연준 통화정책 전환 등 변곡점이 맞물려 포트폴리오 재편 수요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기점으로 상하방 변동성이 모두 커질 수 있음에 유의. 26일 세일즈포스의 실적발표 또한 소프트웨어 업종의 AI 잠식우려 등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6일은 한국은행 금통위 예정. 기준금리는 동결이 예상되며 소비심리, 부동산, 환율 등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와 정책 기조를 확인해야 할 것

반도체의 주도력과 가치주 순환매의 균형, 변곡점 확인과 대응에 집중

현재 코스피는 실적시즌을 소화하며 기업 이익 펀더멘털을 반영, 선행 EPS는 576pt까지 상승하며 최근 급등, 5,600선 돌파에도 불구하고 선행 P/E는 9.8배 수준, 코스피 장기 평균 선행 P/E는 10배 초반에서 형성되었고, 실적 상향 추세를 고려할 때 코스피는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

반도체의 실적 주도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산, 조선 등 실적 뒷받침이 확실한 주도주 업종은 조정 시 비중확대 권고 유지. 에너지, 디스플레이, IT하드웨어 등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업종으로 순환매 대응 유효. 내수주/시클리컬 업종은 미국 GDP, 한국은행 금통위, 3월 초 중국 양회를 앞두고 가치주 순환매 모멘텀 유효

Global Strategy

Global & DM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물가지표(CPI, PCE, PPI)가 살리는 미국 증시&AI 낙관론

- 美 증시, 1월 CPI 확인 후 매크로 변수에 더 반응하기 시작
- 12월 PCE(20일), 1월 PPI(27일) 결과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재부각 요인
- 美 증시, 3월까지 상승이라는 방향성 지속. AI 기술기업, 비중확대

미국 증시, 1월 CPI 확인 후 산업(AI) 변수보다 매크로(물가) 변수에 더 반응하기 시작

과거(21~25년) 한국의 설 명절 기간 동안 미국 증시(S&P500)는 평균 +1.1% 상승했다. 올해도 미국 증시는 한국의 설 명절 기간 동안 +0.7% 상승해, 명절 후 개장한 19일 한국 증시(KOSPI +3.1%)는 명절 기간 반영하지 못했던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큰 폭 반영했다. 계절적(21~25년)으로 1/4분기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1월 +0.8%, 2월 +0.1%, 3월 +1.7% 상승하며, 세금 납부를 위한 주식 매도로 증시가 하락하는 4월(-1.4%) 전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인다. 2월 들어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증시 및 AI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상황이었지만, 1월 CPI(13일)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시장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1월 CPI에 이은 12월 PCE, 1월 PPI 결과는 연준 금리 인하와 할인율 축소 기대를 재부각시키는 요인

1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며 예상치(2.5%) 및 전월치(2.7%) 하회했고 근원CPI는 전년동월대비 2.5%(예상치 2.5%, 전월치 2.6%)로 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동계(12~2월)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중심의 에너지 가격 하락과 그 외 일부 품목(주거비 등)의 가격 상승이 제한되면서 전반적으로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여줬다. 이는 20일 발표되는 12월 PCE와 27일 발표되는 1월 PPI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된 수준에 있음을 재확인해 주며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더 명확해졌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에 해당하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4월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미국 증시, 짧게는 3월까지 상승이라는 방향성은 지속. 미국 및 AI 혁명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비중확대

1월 고용지표 이후, 확인되고 있는 미국 경제지표(고용, 물가)는 금융시장 가격지표를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경기 인식과 예상보다 낮은 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12월 PCE, 1월 PPI를 확인하면서 연준 금리 인하와 할인율 축소 기대는 커질 것으로 보여 미국 증시 및 AI 기술기업에 대한 낙관적 시각은 확산될 것이다. 짧게는 3월까지 미국 증시의 상승 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 및 AI 기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비중확대. 지수: 나스닥, 산업: IT, 소재, 산업재, 자국내 공급망 구축: AI,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전략산업: 우라늄 · 원전, 양자컴퓨터,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테마: 휴머노이드 로봇).

Global Strategy

중국 춘절(春節), 소비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 수단

EM Strategist 문건우
gunwoo.moon@daishin.com

Global & DM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정부의 연이은 경기 부양책 발표로 정책 수혜 업종(미디어, 방산, 건축) 상승
- 춘절 소비 진작책과 기간 연장 감안 시, 소비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
- 3월 양회에서 강도 높은 부양책이 발표될 경우 중국 소비 업종 반등 기대

중국 증시, 춘절 연휴를 앞두고 정책 수혜 업종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중국 CSI300 지수는 주간 +0.36% 상승에 그치며 부진한 반면 지수 내 인터랙티브 미디어(+10.2%), 방산(+7.2%), 건축자재(+6.6%)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정책 수혜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2.9~13일 기준). 이는 중국 정부가 1) 2.10일 인민은행 25.4/4분기 금융정책 보고서를 통한 통화완화 기조 재확인, 2) 2.11일 상무부의 대규모 춘절 소비 진작책 발표, 3) 영국과 캐나다에 대한 비자 면제 시행 등 연이어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한데 기인한다.

대규모 춘절 소비 진작책 발표, 춘절 소비 규모 역대 최고치 경신 전망

성추핑 중국 상무부 차관은 2.11일 춘절 소비 진작책을 발표했다. 연휴 기간 동안 1) 20.5억 위안의 상품권·보조금·현금 지급 등 직접 지원, 2) 10억 위안의 복권식 경품 및 당첨금 지급 행사, 3) 7,000만 위안 규모의 문화 소비 활성화 캠페인, 4)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최대 10% 면세 혜택 추진 등을 언급했다.

'26년 춘절(2.15~2.23일) 소비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연도별 춘절 소비 지표를 보면, '24년 일간 철도·항공·수운 여객 수는 1,586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19년(1,189만명)을 수준을 상회하며 정상화 구간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 '25년 관광객수 5.01억명(+5.7%), 관광수입 6,770억 위안(+7.0%), 박스오피스 수입 95.1억 위안(+18.6%)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중국 정부의 선제적 지원 정책과 연휴 기간 연장(8일 → 9일)을 감안할 때, '26년 춘절 기간 관광수입은 7,000억 위안, 박스오피스 수입은 100억 위안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실물 지표 부진과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3월 양회 정책 강도가 핵심 변수

소비 규모는 확대됐지만 실질적 내수 회복 신호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25년 춘절 기간 1인당 지출액은 169위안으로 팬데믹 이전인 '19년(177위안) 수준을 여전히 하회했다. 12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0.9%(YoY)에 그치며 '25.5월 이후 7개월 연속 둔화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26년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국 최대 경제 지역인 광둥성 지방 양회 결과 성장률 목표를 4.5~5.0%로 제시했으며, IMF·WB 등 주요 국제기구 전망치도 5%를 크게 하회했다.

결국 중국의 실질적 내수 회복과 중장기 성장 경로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3월 양회에서 제시될 정책 강도에 있다. 중국 정부는 1) 1.1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6~'30년) 중 소비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2) 1.20일 민간 투자 및 소비 촉진 패키지, 3) 2.11일 춘절 소비 진작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럼에도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3월 양회에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것은 확정적이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이 제시될 경우, 춘절을 계기로 소비 업종의 추세적 반등이 기대된다.

*[중국 소비재 ETF] 미국(CHIQ): Global X MSCI China Consumer Discretionary ETF / 한국(A150460): TIGER 중국소비테마

Commodity

유가, 보수적 관점 유지하되 호르무즈 해협 이슈 경계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3 월 OPEC+ 회의 앞두고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OPEC+ 증산 가능성
- 다만, 당장은 경계 필요. 이란 핵 협상 난항 속 위태로운 호르무즈 해협
- 지금은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한 구간, 기존 뷰 유지하되 지정학 이슈 경계

3 월 OPEC+ 회의 앞두고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OPEC+의 증산 가능성

OPEC+의 증산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Reuters에 따르면 2026년 4월부터 증산을 재개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자료 〈슈퍼사이클의 서막, 시작된 원자재 내 순환매(2/10)〉에서 살펴본 것처럼 OPEC+ 측은 비수기(공급 과잉 우려)라는 이유로 증산 조치를 1/4분기 동안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중동 산유국들의 성수기인 냉방 시즌(4~9월)이 도래할 경우 더 이상 중단할 명분이 사라진다. 3월 회의를 앞두고 유가의 하방 리스크가 재부상할 구간이다.

다만, 당장은 경계 필요. 미국–이란 핵 협상 난항 속 위태로운 호르무즈 해협

다만, 당장은 경계가 필요하다. 바로 지정학 리스크이다. 17일 이란 측은 추가 핵 협상에서 최종 합의의 토대가 될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s)이 마련됐다고 전했지만,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들이 레드라인(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해법(군사 행동)을 찾아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개의 미 해군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급파됐다. 이란은 1함대를 중심으로 오만만에서 해상 훈련을 단행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불확실성이 재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가 상승 시나리오로 귀결된다. 양측 해군이 충돌할 시 호르무즈 해협(이란 남부)은 봉쇄가 불가피하다. 전 세계 원유 및 LNG 해상 물동량의 21%(아시아향: 83%)가 거쳐가는 해협으로 폭과 평균 수심이 각각 55km와 56m이지만 VLCC급 유조선이 항해할 수 있는 구간(수심 25~30m)은 폭 3km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도 이란 해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국가는 사우디와 UAE가 유일하며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 공급의 7~10%에 해당하는 원유 수출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은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한 구간, 기존 뷰 유지하되 지정학 리스크 경계

그러한 점에서 3/4분기까지 유가 상단이 제한적이라는 기존 View를 유지하되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경계는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돌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에너지 가격(금리) 간의 상관 관계는 의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란 예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지난 17일 미국 측은 2주 내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2025년 6월 19일 때도 이란 측에 추가 협상 시한(2주)을 제시한지 단 3일만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핵시설 폭격)을 단행했다.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예상 밖의 행동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다. 유가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3/4분기限)을 유지하되 과거 전례를 근거로 돌발 상황에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Issue Comment

LG디스플레이 (034220)

1Q 깜작실적, 그리고 2026년 피지컬AI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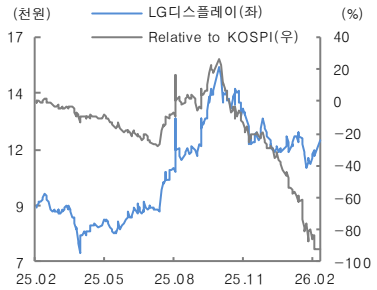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 1Q26 영업이익은 2,109억원(530% yoy) 추정, 예상을 상회
- 글로벌 휴머노이드향 OLED 디스플레이 공급 가능성 상존
- OLED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 2026년 영업이익 148%(yoy) 증가 추정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7,000 유지
현재주가 (26.02.19)	12,28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5677.25
시가총액	6,14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8%
자본금(보통주)	2,50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5,620원 / 7,22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28억원
외국인지분율	27.31%
주요주주	LG전자 외 1 인 36.73% 국민연금공단 6.0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4	-0.8	6.1	27.3
상대수익률	-14.9	-31.3	-41.1	-40.1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7,000원 유지

2026년 1Q 영업이익은 2,109억원(530% yoy/25.2% qoq)으로 종전 추정(1,730억원)과 컨센서스(1,369억원)을 각각 21.9%, 54% 상회 등 호실적을 전망. 1Q 영업이익의 상향으로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1.28조원(147.5% yoy)으로 18% 상향. 그동안의 수익성 개선(OLED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인력 효율화로 고정비 감소, 저수익 사업 및 제품의 축소 등) 노력이 이익 증가의 상향으로 연결. 2026년 메모리(디램, 낸드) 가격의 상승으로 IT기기의 출하량 증가 전망에 불확실성을 부여하나 LG디스플레이의 수익성은 OLED 패널 중심의 전환으로 상쇄, 북미 고객사 내 경쟁 우위로 점유율 증가 전망. 추가로 디스플레이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자동차 그리고 피지컬AI(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로 확대, 가시화될 전망. 2026년 주당순이익을 18% 상향.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17,000원(2026년 주당순자산(BPS) X 목표 P/B 1.2배 적용<실적 성장기 평균>)을 유지. 투자 포인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AI 분야로 진출

1) 스마트폰, TV 등 디스플레이향 OLED 패널의 포트폴리오가 2026년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분야로 확대될 전망. 초기에 휴머노이드 및 로봇에서 정보 전달, 소통의 과정(인터페이스 역할)에서 음성보다는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진행, 중요한 역할로 판단. 저전력 디스플레이를 요구 동시에 자동차 영역(극한 환경 : 고온/저온에서 내구성, 시인성 등 신뢰성 확보 중요)처럼 높은 신뢰성이 중요. OLED 디스플레이가 LCD(LED)보다 경쟁 우위에 있고, 이미 전장향 OLED 디스플레이에서 신뢰성을 확보한 LG디스플레이가 테슬라(옵티머스), 보스턴다이내믹스(아틀라스) 등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업체에게 협력 업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휴머노이드에 적용될 가능성 높은 OLED 디스플레이는 ① 정보전달 역할(배터리, 작업 진행률, 지시사항 체크) ② 휴머노이드의 표정을 표시(OLED는 응답속도가 빠르고 색 재현성이 높아서 로봇(휴머노이드)의 눈, 입 모양도 자연스럽게 구현 ③ 플렉서블 OLED로 활용, 로봇의 머리, 팔 등 곡면 부위에 적용, 로봇/휴머노이드의 디자인의 자유도 확대에 기여

2026 영업이익 1.28조원(148% yoy) 추정, 본격적인 수익성 확대

2) 2026년 북미 전략 고객사내에서 점유율 증가가 예상. 스마트폰의 라인업 변화(폴더블폰 추가)에서 기존의 모델(바 형태) 중심으로 점유율 증가, 믹스 효과로 2026년 수익성 호조의 토대를 제공. 경쟁사가 폴더블폰 모델에 주력하면 고객사 내 공급 물량의 변화에서 반사이익 측면의 수혜가 예상. 중국의 경쟁업체는 LTPO에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공급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그러면 2026년 하반기에 대형 OLED 패널에서 추가적인 감가상각비의 축소, 북미 고객사내 프리미엄 모델에서 점유율 증가로 믹스 효과가 예상. 저수익 모델(IT기기향 LCD 패널)의 축소 및 OLED 패널의 전환을 반영하면 큰 폭의 영업이익은 증가(2H26 영업이익은 9,291억원으로 55%(yoy) 증가로 추정

Issue Comment

코리아써키트 (007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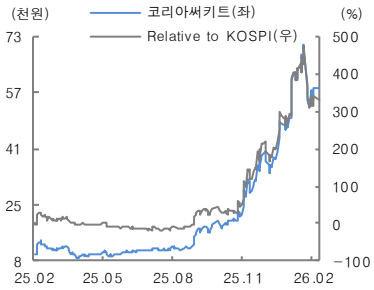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2,000 유지
현재주가 (26.02.19)	57,9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5677.25
시가총액	1,42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4%
자본금(보통주)	1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0,700원 / 8,98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47억원
외국인지분율	6.66%
주요주주	영풍 외 6 인 53.33% 국민연금공단 5.8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4	84.1	394.4	313.6
상대수익률	-20.0	27.4	174.5	94.6



2026년 차별화된 성장, 저평가 지속!

- 1Q26 영업이익(287억원)은 흑자전환(yoy) 추정
- 2026년 영업이익(1,351억원)은 151%(yoy) 추정, 호실적 전망
- 2026년 브로드컴(AI), 엔비디아(소캠)향 매출 증가 예상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82,000원 유지

연결, 2026년 매출은 1.7조원(12.6% yoy), 영업이익은 1,351억원(151% yoy)으로 추정, 2025년 3Q 이후에 본격화된 성장 추세가 2026년 지속될 전망. 별도(코리아써키트)의 매출(1.11조원)과 영업이익(962억원)도 각각 28.3%(yoy), 83%(yoy)씩 증가 추정 등 별도, 연결이 동시에 호조를 예상. 2026년 EPS 기준으로 현재 P/E 13.5배로 PCB 업종내 저평가로 판단,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82,000원(2026년 EPS X 목표 P/E 23배(실적 회복기 상단) 적용) 유지. 투자포인트는

2026년 영업이익은 151%(yoy) 증가 추정, 저평가 지속

1) 연결, 2026년 1Q 영업이익(287억원)은 흑자전환(yoy), 매출(4,052억원)은 14.3%(yoy) 증가로 추정. 서버향 메모리모듈의 매출 확대 속에 HDI(경성 PCB)의 높은 가동률이 유지되면서 높은 수익성은 지속. 최근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기존 IT기기의 수요 둔화로 예상하나 데이터센터 및 서버향 메모리 수요는 강하다고 판단. 메모리 사양의 상향으로 면적 증가 및 층 수의 확대가 진행. 메모리 모듈향 반도체 기판은 수량(Q) 및 가격(P)이 동시에 증가 시기(2026년)로 판단. 또한 애플이 디스플레이의 전략 변화(OLED로 전환)로 디스플레이향 HDI(경성) 매출도 증가하면서 가동률 상향으로 2026년 매출, 이익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예상. 2026년 인터플렉스의 공장을 활용하여 내층(층수 확대의 필수적인 공정)의 투자가 진행되면 2026년 하반기, 2027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

2026년 상반기 소캠2, AI향의 신규 매출 예상

2) 2026년 상반기에 주목할 이슈가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도 가능 판단. 우선 엔비디아의 소캠2 출하가 2026년 2Q 시작될 전망. 국내 메모리 모듈향 기판(PCB) 업체 3사가 메모리 업체별(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로 차별된 경쟁 우위를 예상. 소캠2향 메모리모듈 매출을 예상, 규모는 미미하지만 서버향 메모리모듈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2027년 이후에 시장 확대로 수혜를 예상. 또한 전략적으로 협력 중인 브로드컴향 FC BGA 매출이 AI향 영역으로 진입 여부에 주목. 현재 통신부품향 공급에서 수익성 높은 AI향으로 신규 진입하면 2026년 하반기에 추가 매출 및 믹스 효과로 연간 실적의 상향이 가능하다고 분석. 반도체 PCB(패키지) 매출 중 FC 계열(FC BGA, FC CSP, FC BOC)의 비중이 2024년 68%에서 2025년 74%, 2026년 80%로 증가하여 반도체 기판 업체로 전환이 본격화. PCB 시장도 FC 계열 중심으로 성장 전망

Results Comment

엠씨넥스 (097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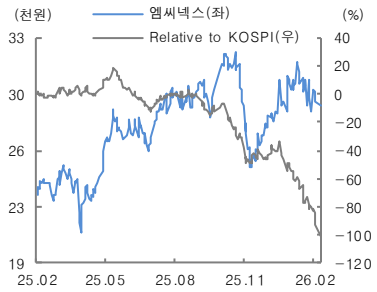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7,000** 유지
현재주가 (26.02.19)	**28,8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5677.25
시가총액	50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2,100원 / 20,9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8억원
외국인지분율	18.92%
주요주주	민동욱 외 4 인 30.2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7	15.2	-2.2	19.0
상대수익률	-21.1	-20.3	-45.7	-44.0



26년 전장향 매출 확대

- 4Q25 영업이익은 82억원(23% qoq)으로 추정을 하회
- 1Q26년 영업이익은 112억원으로 36%(qoq) 증가 추정
- 2026년 전장향, 구동계 등 신성장 매출 증가 전망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37,000원 유지

2025년 4Q 영업이익은 82.2억원(-55.5% yoy/22.5% qoq)으로 종전 추정(142억원)을 하회. 매출은 3,014억원(1% yoy/-0.7% qoq)을 기록. 고객사내 스마트폰에서 재고조정 진행(매출 추정 하회 배경), 또한 일회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 2025년, 2026년 주당순이익(EPS)을 각각 6%, 6.1%씩 하향.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를 37,000원 유지. 투자포인트는

구동계 및 자동차향 매출 확대로 2026년 영업이익은 증가 추정

1) 2026년 실적 개선은 유효 동시에 전장향 매출 성장에 주목. 전체 매출은 1.3조원(1.8% yoy), 영업이익은 555억원(6.7% yoy)으로 추정. 전장향 매출은 2024년 2,708억원에서 2025년 3,000억원으로 10.8%(yoy) 증가하였으며 2026년 3,179억원으로 6%(yoy) 증가 등 전장향 카메라 및 부품업체로 성장 전환이 진행. 현대자동차의 1차 공급업체로 전기자동차의 라인업 확대, 출하량 증가의 수혜가 확대 예상. 스마트폰의 성장 둔화를 전장향(전장향 매출 비중은 24.4%로 추정)으로 상쇄 가능

2) 2026년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가격의 상승으로 성장 전망에 불확실성이 존재, 삼성전자의 판매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 다만 엠씨넥스는 액츄에이터(OIS) 매출은 2,027억원으로 9.1%(yoy) 증가 추정으로 성장은 유효, 고객사내 점유율 증가가 진행, 또한 폴디드줌용 OIS 매출 비중 증가가 믹스효과로 연결, 삼성전자도 2026년 중저가 보다 프리미엄 모델의 판매 확대에 주력 예상, 폴디드줌 액츄에이터에서 점유율 증가가 상대적으로 성장 요인으로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4Q24	3Q25	4Q25					1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98	304	322	301	1.0	-0.7	295	320	-8.0	6.2
영업이익	18	7	14	8	-55.5	22.5	14	11	-46.4	36.4
순이익	27	10	12	9	-66.7	-6.7	0	10	-50.5	11.7

자료: 엠씨넥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932	1,057	1,279	1,302	1,345
영업이익	18	44	52	56	59
세전순이익	28	59	60	61	64
총당기순이익	28	64	52	49	52
지배지분순이익	28	64	52	49	52
EPS	1,553	3,538	2,877	2,802	2,961
PER	19.5	5.4	10.0	10.3	9.7
BPS	18,001	20,705	22,887	25,639	27,866
PBR	1.7	0.9	1.3	1.1	1.0
ROE	8.8	18.3	13.2	11.4	11.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엠씨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